나라현・한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

제 3 탄　이시부타이 고분・아마카시노 오카 언덕

올해는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가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.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, 특히 충청남도와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. 제 3 탄에서는 이시부타이 고분과 아마카시노 오카 언덕을 소개합니다.

국영 아스카 역사 공원 내 이시부타이 주변지구 중앙에는 30 여개의 바위로 만들어진 거대한 고분인 '이시부타이 고분'이 있습니다. 매장된 인물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나, 6 세기 후반에서 7 세기 초의 권력자인 소가노 우마코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.

이시부타이 고분은 널방의 길이 7.7m, 폭이 약 3.5m, 높이 4.7m, 바위의 총 중량이 약 2300 t 으로, 그 크기에서 축조 당시의 훌륭한 토목 기술과 운반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. 또한, 봉분의 성토가 유실되어 거대한 양수식의 횡혈식 석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, 분형은 방분 또는 상원하방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

이시부타이 고분
(사진제공 : 아스카무라 교육위원회 문화재과)

이시부타이 고분 석실 입구

상원하방분은 백제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고분의 묘제로 알려져있어, 이시부타이고분도 백제 석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. 석실 안으로 들어갈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 거대한 크기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.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, 매장자는 확실하지 않으나, 당시 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의 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이시부타이 고분은 계절마다 다른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봄에는 주변에 벚꽃이 피어 매우 아름답습니다. 계절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이시부타이 고분에서 고대 아스카의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.

아스카무라의 봄에는 이곳도 추천합니다 !

아마카시노 오카 언덕 (아마카시노오카 전망대)

아스카의 중심에 있는 표고 148m 의 완만한 언덕인 '아마카시노 오카' 언덕에서는 아스카무라와 후지와라 궁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

고대인들이 이 언덕에 올라 아스카의 풍경을 바라보며 읊은 다수의 시가 만엽집에 남아 있으며, 지금도 만엽집에 나오는 벚꽃과 자두꽃 등의 만엽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도 아마카시노 오카 언덕에 올라 아스카의 경치를 바라보며 옛날 아스카인이 된 기분을 느껴보세요.

아마카시노 오카 언덕에서 바라본 풍경
(사진제공 : 일반재단법인 공원재단 아스카 관리 센터)

(나라현 국제교류원 남현정)